

《자유연제Ⅳ 10:50~11:40》

## 상완골두 치환술을 이용한 근위상완골 분쇄골절의 치료

서중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목적

비교적 고령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 잘 발생하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대개 전위가 적고,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견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상완골 근위부의 삼분골절 및 사분골절에서 견관절 전치환술 후 견관절이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회복정도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대상 및 방법

1992년 4월부터 1999년 3월 사이에 근위상완골 골절로 견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최소한 1년 이상 추시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2.4년이었다. 견관절의 기능 평가는 UCLA scoring system(Modification for hemiarthroplasty)을 사용하였다.

### 결과

남자가 2명, 여자가 8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65세였으며, 좌측이 5명, 우측이 5명이었다. 수상의 원인은 교통사고가 3명이었으며, 나머지 7명은 모두가 낙상이었다. Neer의 분류상 삼분골절이 6명, 사분골절이 4명이었다. 사분골절 4명중 3명이 액와신경손상이 동반되었고, 삼분골절의 경우 6명 중 1명만이 신경손상이 동반되었다. 최종 방문시의 UCLA score는 평균 18.5점(30점 만점)이었고, 이중 삼분골절의 경우 평균이 22점, 사분골절이 13.25점으로 삼분골절이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Pain score는 평균 7.1점, Function score는 5.5점, Muscle power and motion score는 5.6점으로 동통 완화에 대한 결과가 비교적 우수하였다.

### 결론

상완골 근위부의 분쇄골절의 치료로서 견관절 반치환술은 견관절의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일상 생활은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으며, 동통 완화의 측면에서 비교적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쇄정도가 심할수록 동반되는 신경손상도 많았고, 기능적 결과도 좋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상시 손상의 정도가 예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